

# ‘상상이 현실로’ ... 전북 청소년들, 5월 익산에서 뭉친다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가 오는 20~21일 이틀간 익산시 중앙체육공원과 예술의전당, 청소년수련관 일원에서 열린다.

익산시 모현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창작하는 경험 중심의 혁신 공간인 '내일의 어린이실'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나은정 시 복지국장은 13일 시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브리핑을 가졌다.



나은정 익산시 복지국장



지난해 열린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사진=익산시청 제공)

## 20~21일 '제3회 전북자치도 청소년박람회' 익산 일원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상상력이 익산의 5월을 뜨겁게 달군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가 오는 20~21일 이틀간 익산시 중앙체육공원과 예술의전당, 청소년수련관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고 13일 밝혔다.

'청소년의 상상이 전북의 미래로 피어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박람회는 도내 청소년과 도민 등 1만여 명이 대거 참여하는 전북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다. 익산 14개 학교에서도 2,700여 명의 청소년이 동참한다.

주최 측은 도내 각지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차량 170여 대를 전방위로 지원하며 완벽한 행사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체육공원 행사장에는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트렌드를 반영한 8개 분야, 총 128개의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진열된다.

우선 △미래·진로 △글로벌 △그린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 등 미래



## 128개 체험 부스 총동원... AI·미래 기술부터 '스트레스 해소존'까지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펼치는 꿈의 무대 '아트 페스티벌' 열기 후끈

기술 체험부터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활동, 글로벌 문화 교류까지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또 △지역·성장 △삼삼 △나눔 분야에서는 청소년의 고민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소통 창구가 마련된다.

그중에서도 학업 스트레스 타파 '스트레스 해소존'은 익산시 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가 야심 차게 준비한 특별 구역으로, 오직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학업 스트레스 해소만

을 위한 6개의 이색 체험 부스가 가동된다.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차별점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무대에 청소년들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부스를 운영하는 '주도형 축제'라는 점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청소년 아트 페스티벌'에서는 치열한 예선을 뚫고 선발된 익산의 대표 청소년 동아리 10개 팀이 무대에 오른다. 보컬, 댄스 등 그동안 갈고닦은 끼와 재능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축제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토크콘서트와 특별 강연, 청소년 자립봉사포럼 등 깊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엮여 운영된다.

시는 5월의 따뜻한 봄 날씨를 감안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전역에 감각적인 야외 쉼터와 휴식 공간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나은정 익산시 복지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전북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익산에서 펼쳐지는 이틀간의 대축제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빛나는 추억이자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숙하고 정숙해야만 하는 도서관의 규칙을 깨고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뒹굴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익산에 들어선다.

익산시 모현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창작하는 경험 중심의 혁신 공간인 '내일의 어린이실'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단순히 책을 빌려 읽는 고지식한 열람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창작 놀이와 휴식이 완벽히 공존하는 미래형 어린이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의 경계를 허문 '자연 친화적 설계'다. 도서관과 맞닿은 모현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실내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야외 테라스를 연계 조성한다.

어린이들은 딱딱한 책상을 벗어나 자연의

## 맘껏 뒹굴며 나만의 세계 창조

아이들 목소리로 설계한 모현도서관 '내일의 어린이실' 12월 개관

자연 친화적 설계가 특징... 사계절 변화 느낄 야외 테라스 연계 조성

8~13세 전용 '0813 작업실' 도입... 2000원 맞춤 큐레이션 등 가득

그늘 아래서 탐색과 물입, 온전한 휴식을 유기적으로 경험하며 공간이 주는 창의적 영감을 만끽하게 된다.

특히 8~13세 어린이를 위한 독립된 전용 공간인 '0813 작업실'이 별도로 들어서 눈길을 끈다. 이곳은 아이들의 관심사와 호기심을 철저히 분석해 엄선한 2,000여권의 테마 큐레이션 도서가 비치된다.

또한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머릿속 상상을 곧바로 손으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그리기, 만들기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이 가능한 창작 도구와 다채로운 재료를 상시 제공해 아이들의 창의력으로 꾸며진다.

이번 도서관 공간 혁신의 진짜 주인공은 아이들 자신이다. 시는 일방적 주도의 공사를 지양하고, 실제 이용자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3개월 동안 세심한 이용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시는 8세에서 13세 어린이들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내일의 모모단'을 운영,



익산 모현도서관 전경

현장 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진짜 원하는 도서관'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설계 전 단계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일의 모모단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내가 상상했던 도서관의 모습을 직접 제안할 수 있어서 정말 신났다"며 "새로운 어린이실이 열리면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자랑하고 매일

놀러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아이들의 의견이 녹아든 설계를 마무리 짓고 오는 6월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다. 하반기 중 큐레이션 도서 및 기자재 구입을 완료해 오는 12월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나은정 익산시 복지국장은 "모현도서관의 '내일의 어린이실'은 아이들 누구나 어떠한 편견과 차별 없이 환대받으며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자유 구역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인 경험 중심 공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신만의 우주를 발견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와 함께 내일의 어린이실을 조성하는 재단법인 씨앗은 공공도서관과 협력해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조성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